



박소현의 섹.시.토크

이 순간이 이렇게 빨리 오리라고는 예상치 못했다. 십년 정도 뒤에 일어나도 일어날 일이라니...

어젯밤 부부는 오랜만에 잠자리를 가졌다. 오랜만이라고 해도 정확히 일주일 만이다. 일주일에 두 세 번 잠자리를 하는 사이였는데 남편이 출장을 다녀오면서 일주일이라는 간격이 생겼다.

결혼한 지 이제 삼년 째. 연애도 딱 삼년을 했다. 잠자리를 가진 시간으로 계산하면 5년째에 이르지만 여전히 둘은 잘 맞았고, 신혼 못지 않다...

“당신 왜 이래?”, “모르겠어. 피곤해서 그런가봐.”

남편은 한 마디 내뱉고는 전화를 뚝쳤다. 더 해서 뭐하냐 싶은 생각이 들었던 모양이다. 그 순간

오만가지 생각이 지나갔다. 남편이 갑자기 불쌍하게 느껴졌다. 마흔이 목전이라 해도 아직 삼십대 아닌가? 평소 시들했던 남편이라면 이렇게 놀라지도 않았을 것이지만...



이런 일을 겪을 때, 흔히들 가장 좋은 반응은 ‘괜찮아. 그럴수도 있지 뭐.’하고 아무렇지 않게 넘기는 거라고 한다. 그러나 막상 겪어보니 말이 나오지 않는다.

“미안해.” 남편은 잔뜩 주눅 든 한 마디를 던지고는 몸을 돌려 새우처럼 웅크렸다. 괜찮다고 해야 하는데 그녀의 입에서는 ‘어떡하지?’가 나오

고 말았다. “당신 기력이 없나봐. 녹음 먹어볼래? 개소주 같은 건 어떨까?”

정말 걱정돼 한 말인데 남편 귀에는 그렇게 들리지 않았던 모양이다. 남편이 갑자기 께하니 내

“당신 왜 이래?”

“모르겠어. 피곤해서 그런가봐?”

“어떡하지?”

지른다. “이대로 영영 못하게 될까봐 그렇게 걱정돼? 한번 이런 걸 갖고 왜 이렇게 수선을 피워?”, “내가 무슨 수선을 피웠다고 그래?”

결국 그날 밤 한바탕 싸움을 벌이고야 말았다. 급기야 물건을 안서는 고자, 잠자리에 환장한 여편네 같은 최악의 표현들이 마구 쏟아졌다. “그러니까 네 행동은 사업에 실패해 돌아온 남

그날 밤을 어떻게 맞을 것인가

편에게 ‘그럼 우리 이제 죽으러 가요’라고 한 거나 마찬가지야.”

오늘 아침 친구가 전화로 해 준 충고다. “아무것도 아닌 걸로 사건을 확대했다는 거지. 일 년에 몇 번 안 사는 남자도 많은데, 딱 한번 그랬다고 사람을 그렇게 괴롭히냐?”, “난 괴롭힌 게 아니라...”

“생각해 주는 척하면서 스트레스 주는 게 진짜 괴롭히는 거지.”

친구 말을 듣다보니 정말 잘못했나 싶은 생각이 든다.

“또 한 가지 유념해야 할 점은, 발기를 못하게 꼭 남편 몸 상태 때문일까? 너 때문인지도 몰라. 네가 지겨워졌다가나 디이상 섹시하지 않다가나. 그리고 모르긴 몰라도 어제 네 행동 때문에 앞으로 남편은 더 안 사게 될 거다.”

충고인지 악담인지 헷갈리는 전화를 끊고 그녀는 자신이 정말 잘못하긴 했구나 하는 결론에 다다랐다. 다시 어제와 같은 순간이 오면 그때는 정말 아무렇지 않게 행동해야겠다고 마음도 먹었다.

그런데 다시 어제와 같은 순간을 맞이해야 한다고 생각하니 갑자기 답답해졌다. 정말 답이 없는 문제였다.

<연애칼럼니스트>

리빙 센스

피부를 위한 모닝 케어

① 가벼운 세안 세정력이 너무 강하지 않은 세안제를 선택한다. 건조한 피부는 가끔씩 물세안만 하는 것이 좋다.

② 스킨으로 팩하기 스킨으로 적신 화장솜을 5분 정도 피부에 올려놓으면 수분 유지에 좋다.

③ 수분 전용 제품 사용하기 스킨이 마르기 전에 수분에센스와 수분크림을 발라서 수분의 증발을 막고 피부에 수분을 공급한다.

④ 자외선 차단제 바르기 자외선은 피부 수분을 빼앗아가기 때문에 꼼꼼하게 자외선 차단제를 발라 피부 방어막을 만든다.

知天命이 되는 오늘의 운세 9월 12일(음 8월 13일 乙卯)

36년생 새로운 문서가 있으나 실패하지 않다. 48년생 근진자로 인해 손해가 생길 수도 있다. 60년생 조심을 해야 할 하루다.

37년생 제사가 즐겁고 잘 풀리지만 조심은 하라. 49년생 희망이 다가오니 가서 맛을 준비를 잘해야 한다. 61년생 욕심은 금물이다.

38년생 소란스런 상황에서 벗어나지만 아직은 아니다. 50년생 길보다는 흉을 조심하라. 62년생 마음에 드는 이성이 나타나리라.

39년생 바람이 불어와도 자신이 빠지지 않으면 되리라. 51년생 자신의 행복은 자신만이 이룰 수 있다. 63년생 노는 것을 피하라.

40년생 부모 형제와 불행 일이 생긴다. 52년생 조금만 인내하라 시비가 생길라. 64년생 그동안 기다렸던 일이 성사가 될 가능성이 보인다.

41년생 친지들의 시기가 보이려고 하니 다시한번 주변을 살펴 보라. 53년생 이인보다는 손해가 더하니 꼭 가야할 곳만 가야한다.

42년생 신사가 생기지만 주의도 기울여라. 54년생 물건을 잃었다 찾는 기본이다. 66년생 표리가 부당한 친구를 피해야 하리라.

43년생 신문서와 구문서가 교체된다. 55년생 기쁨도 크지만 고생도 크다. 67년생 기대했던 중언은 오히려 실망을 가져온다.

44년생 피곤한 하루지만 이득은 있다. 56년생 물에 맞는 계획을 세우면 반은 성공이다. 68년생 세밀한 설계도와 비상대책은 꼭 세워두라.

45년생 좋은 생각이 좋은 인연을 만나니 심신을 끈기 쓰라. 57년생 서두르지 않아도 자연스레 이루어라. 69년생 사기에 휘말리는 것은 자신의 사기성도 안 봐야 한다.

46년생 이사변동수가 있으니 준비를 하라. 58년생 밖의 일이 잘 풀리려 내사를 할 다스려야 가능하다. 70년생 자신의 불평은 혼자 감수하라.

47년생 흥한 것이 오히려 복으로 변한다. 59년생 좋은 일 끝에 흥한 일을 만들라 조심이 우선이다. 71년생 안과 귀를 동시에 주의하라.

www.cafe.daum.net/sajoo114 ☎011-632-6121

더마플라스트 밴드 DermaPlast. 제품문의: (주)호원약품 062-383-5883

검색절정 키워드 검색

동생 머리에 칩 바른 페일린 딸 화제

이번주 인터넷은 연기자 안재환의 자살 소식으로 시끄러웠다.

지난 8일 오전 안재환이 서울의 한 주택가에 세워진 자신의 차량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50억대의 사재가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알려진 안재환은 아내인 개그우먼 정선희에게 ‘사랑한다’는 유서를 남겨 네티즌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

가스 질식사에 의한 자살이라는 경찰 조사가 나왔지만 사체업체에 의한 타살이라는 유증의 의견이 나오면서 이번 사건을 두고 네티즌의 논란이 뜨겁다.

화려한 옷을 입고 조문을 간 낸시 램은 네티즌의 도마위에 올랐다. 행위 예술가 낸시 램은 오렌지 색 니트에 커다란 뿔 귀걸이를 하고 안재환의 빈소를 찾아 네티즌의 빈축을 샀다.

낸시 램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오전에 참석했던 행사의 성격에 맞춰 오렌지 색 옷을 입었는데 딱딱한 스키텔에 옷 갈아입을 겨를이 없었다”고 변명했지만 네티즌의 시선은 싸늘하다.

네티즌은 “옷을 갈아입는 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느냐?”, “행위 예술가로 외국 생활을 했다고 쳐도 외국에서도 장례식에서 검은 옷을 입는 게 상식인데 도를 넘어섰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새 국면을 맞고 있는 미국 대선이 한국 네티즌 사이에서도 화제다. 특히 공화당 부통령 후보 세라 페일린의 막내 딸 파이퍼 페일린.

에 등장했다. 엄마 페일린의 부통령 후보지명 수락 연설 5개월 뒤 동생을 안고 있던 7살 파이퍼가 손바닥에 칩을 바른 뒤 남동생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정돈하는 모습이 카메라에 잡히면서 화제가 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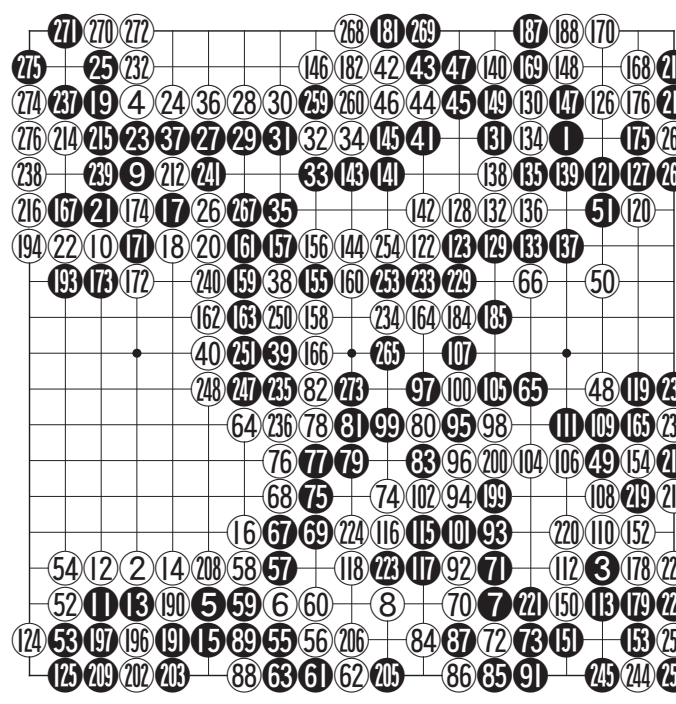


깜찍한 모습으로 네티즌의 사랑을 받고 있는 미국 공화당 부통령 후보 세라 페일린의 막내 딸 파이퍼 페일린.

제17회 光日盃 광주전남직지비대회

김영수 5단 결승진출

개인전 준결승 총보(1~276) 白 김영수 5단 黑 방재혁 5단 (전남교사회) (창이유통)



이 판은 개인전 준결승답게 두대국자가 팽팽한 긴장감 속에서도 최선을 다해 벌인 멋진 승부였다. 결과는 마지막까지 평상심을 유지하며 냉정하게 바둑치기를 결행한 김영수 5단의 승리였지만 방재혁 5단의 투지도 불렀다.

대한주변경사광주전남지역본부 EL DORADO 엘도라도리조트

굿모닝 잉글리쉬 <1145> I've have enough of this 나는 이것들은 이제 질색이야

오하오우 니혼고 <1145> お陰様(かげさま)で、ぼちぼちってところだね. 덕분에 그럭저럭 되고 있습니다

니하오 쑹구위 <222> 商场远吗? 상점은 먼니까?

한자 이야기 <862> 發憤忘食(발분망식) 일어날 발, 분발할 분, 잊을 망, 먹을 식